



현대화 꿈 구축하고 새 청사진 함께 그리자

2024년 전국 인대 정협 회의 특집

길림대표단 소식공개회 소집

길림성 대표들 대회에 의안 도합 11 건 제기

3월 9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한 길림대표단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대표단의 심의 심사와 의안 제기 등 사업 상황을 소개했다. 3월 8일 점심까지 우리 성 대표들은 기본근로기준법, 업주위원회 선거법 제정 등 11 건의 의안을 대회에 제기, 모두 대회 의안으로 확정되었다.

북경에 도착한 이래, 길림대표단 전체 대표들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였다.

길림대표단은 3월 6일, 7일, 8일에 각기 전원회의를 열어 제1시간에 습근평 총서기가 강소대표단 심의에 참가했을 때, 정협회의에 참가한 국민당혁명위원회, 과학기술계, 환경자연계 위원들을 위문했을 때,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중요 연설을 전달하고 참석했다.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과정을 추진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의 혁신 활력과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고품질 발전의 생태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신중 분야의 전략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등 중대한 시대적 명제와 실천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천명하고 중요한 배치를 했다. 이는 관련 사업에 대해 중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대표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습근평 총서기는 큰 국면을 파악하는 전략적인 명석함과 견고한 전략적 의지로 전당과 전국을 인솔하여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 제2의 경제체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거대한 선박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돛을 올려 원항하도록 인도했다.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근본은 습근평 총서기가 키를 잡고 항행을 인도한 데 있으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 인도에 있다. 실천이 증명하다 싶이 '두가지 확립'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잘하는 자신감의 근본이고 힘의 원천이다. 습근평 총서기의 인솔이 있기에 기둥이 생기고 정반성(定盤星)이 생기고 압창석(壓艋石)이 생기며 모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최대의 확실성, 최대의 전력, 최대의 보장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습근평 총서기를 바짝 따라 단결분투하여 새시대 길림 전면 진흥의 새로운 장을 힘써 엮어나갈 것이다.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동북을 10차례, 길림을 3차례 직접 방문 시찰했고 지난해 9월에는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

회를 소집하고 중요 연설을 했으며 이어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를 주재, 소집하여 <새시대 동북 전면 진흥이 새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 의견>을 심의해 동북에 관한 깊은 중시와 길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전국인대 대표로서 반드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과 새시대 동북 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며 인민들 속에서 나와 인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는 특징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하여 길림의 고품질 발전과 지속가능한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롭고도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대회가 개막된 이래 길림대표단 여러 대표들은 고도로 되는 정치적 자각성과 충만한 정치적 열정, 강력한 정치적 책임으로 제반 보고와 초안을 열심히 심의하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많은 정확하고 투철한 견해를 내놓아 새시대 인대 대표들의 풍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3월 9일 오후까지 길림대표단은 7차례의 전원회의, 6차례의 대표 소조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사업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법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계획 보고와 초안, 예산 보고와 초안을 법에 따라 심사하고 국무원 조직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였다. 대표들은 이에 찬성과 옹호를 표했다.

3월 8일 오전, 길림성 전국인대 대표이며 리수현봉황산농기계농민 전문합작사 리사장인 한봉항이 인민대회당 '대표 토크'를 통해 기자들의 집중 취재를 받으며 '과학기술로 농업을 조력하는' 농업현대화 발전 이야기를 공유했다. 분투하는 길림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잘 보여주고 진흥과 발전의 시대의 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3월 6일 오후 길림대표단은 개방 일 활동을 거행하였는데 <인민일보>, 신화사, 중앙라디오텔레비전 방송총국, <광명일보>, <경제일보>, <중국일보>, 중신사, 봉황위성 TV, 로이터통신 등 국내외 35개 언론매체의 기자 49명이 참가했다. 길림성대표단 단장이며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 대표단 부단장이며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정인 호우정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8명의 대표들은 기자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소개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의 지도 아래 길림성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완전하고도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1주 6생' 고품질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했으며 '4대 산업 집군'을 육성하고 '6신산업'을 발전시키며 '4신시설'을 건설했다. 고품질 발전체계와 고품질 생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사상과 중대한 조치 및 이룩한 성과는 전면 진흥의 술선 돌파를 추동하려는 2,400만 길림성 인민들의 자신심과 결심, 용기와 전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길림일보

양대용대표 :

식량생산판매지 횡적 리익보상기제 구축해야



"식량안전은 국가안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기존의 실천으로부터 볼 때 기존의 농업 부대정책 체계는 식량 주산지의 식량생산의 전략적 지위를 완전히 지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식량생산은 수익이 낮고 식량 관련 이전지불이 적으며 식량 주산지에 대

한 격려가 부족한 등 난제에 직면해있다." 올해 랑회에서 양대용대표는 식량 생산지와 판매지의 성간 횡적 리익 보상기제를 구축하여 농민들의 량곡 재배와 주산지 식량생산의 '두가지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제고시킬 것을 건의했다.

"계층별, 지역별, 중점적인 농업 중시 식량지원기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식량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생산 주요 성, 주요 시, 주요 현을 시범점으로 하여 식량 생산, 판매 지역의 성간 횡적 리익보상기제를 실시하고 지역 식량생산능력 향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식량 주산지 등에서 '3가지 손실 방지'를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양대용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식량 조달 보상금의 설립을 다그쳐야

한다. 중앙재정의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식량생산 상벌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마다 각 지역의 식량 반입량과 반출량에 근거하여 식량을 순수 반입하고 일정한 량의 재정자금을 보상금으로 교부하여 식량을 순수 반출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례에 따라 보상해줌으로써 식량 주산지의 식량생산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경작지 보호 보상금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경작지가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징수하여 경작지 보호 보상금으로 하고 이전지불 형식으로 대량의 경작지 보호 임무를 부담한 지역에 장려보조를 할 것을 건의한다.

주산지에 대한 장기 보상기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중앙재정은 이전 지불의 강도를 한층 더 제고하고 식량 관련 이전지불 자금의 한도액을 적당

히 늘리며 특하는 식량 주산지 현에 대한 보조장려 제도를 보완하고 급별 장려 기준을 세분화하며 각 지역의 경작지 양과 영구 기본농지 상황에 따라 장려 자금 액수와 식량 생산량, 증량, 경작지 보유량을 직접 연계시켜 지방정부로 하여금 식량생산에 더욱 '동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양대용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주산지와 주요 판매지의 산업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식량 주산지에서 원곡과 1차 농산물을 팔고 식량 주요 판매지가 정밀가공을 통해 리운을 챙기던 과거의 량곡화된 공급, 판매 방식을 바꿔 분공장 개설, 생산이전 등 방식으로 주판매지 기업을 인도하여 산업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액, 세금 배분 공유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길림일보

려애취위원 :

목축업 고품질 발전의 '새 목가' 연주해야



목축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산업이고 육류, 달걀, 우유 제품은 군중들의 장바구니의 중요 품종이다. 줄곧 농업 분야에 중시를 들려온 려애취위원은 직책 리행의 초점을 축산업의 질높은 발전에 두었다.

전 단계의 대량의 조사연구를 거쳐 려애취는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목축

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개성화됨에 따라 목축업의 구조도 점차 조정되고 있으며 특수사육, 생태사육 등 새로운 사육 방식도 점차 흥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목축업 발전은 여전히 산업 발전의 질과 효과의 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보장 체계가 건전하지 않으며 각종 위험 방지 능력이 약한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어떻게 목축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려애취는 자기의 해답을 내놓았다.

"우선 새로운 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려애취는 가족가금 사육 용지 수요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가족가금 사육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사육 규모가 자원환경에 어울리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목초, 곡

식대 등 자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고 퇴화된 초원의 생태복원사업을 강화하며 초원의 생산능력을 회복, 제고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우량종 육성과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목축과학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새로운 사육 기술과 품종을 연구개발하며 목축업의 혁신 능력을 높여야 한다. 가족가금 유전 개량 계획과 현대 종자산업 향상 공정을 계속 실시하고 산학연(产学研) 합동육종기제를 건전히 하며 소와 양의 전문화 품종 선정 육종을 다그쳐 핵심종자 자급률을 점차 제고해야 한다. "가족가금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급 및 성급 품종 보호장, 보호구, 유전자은행 건설을 강화하고 지방 품종 자원을 전부 보장하며 질서있게 개발해야 한다."

려애취는 또 축산업 인재와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목축업 인재의 양성과 도입 사업을 강화하여 목축업인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학교,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목축업 인재 양성과 과학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기업이 제품 인증, 지리표시 보호 등 활동을 전개하여 축산물의 지명도와 품질도를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축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 기술의 응용을 강화하고 축사 환경 조절, 정밀사료, 동물역병 감시, 가족가금제품 추적 등의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려애취는 "목축업 고품질 발전의 '새 목가'가 더욱 널리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길림일보

류보위원 :

폐균봉을 보물로 만들어야



"우리 나라 식용균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이미 향촌 진흥의 중요한 산업으로 되었다. 식용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의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효과적인 경로이다."

식용균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돌려온 류보위원은 폐균봉(廢菌包) 오염이 식용균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험한 제약 요소로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폐균봉 자체가 식용균 생산지 환경에 오염시키는데 그중 오염된 집균이 있는 폐균봉에서 계속 균이 생장하고 번식하여 집균이 생산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는 고품질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우리 나라 균물학과 정초자이며 식용균 산업 개척자이며 전국 빈곤해탈 난관 돌파의 모범인 중국공정원 원사 리옥과 그 연구팀에 가르침을 청구하고 허심하게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류보위원은 이렇게 인정했다. 식용균산업 발전에서 오염을 두절하고 식용균 폐균봉에 대해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무해화처리를 하는 것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지방 정부, 기업 및 식용균 재배 농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일종의 장기 효과적인 폐균봉 관리기제를 형성하고 식용균 폐균봉의 재활용 및 과학화, 규범화, 표준화, 무해화처리로 폐균봉을 보물로 만들어야 한다."

류보위원은 이렇게 제안했다. 과학기술의 지지력을 강화하고 폐균봉 종합리용 연구개발 전문 프로젝트를 설립해야 한다. 각급 과학기술부문은 지원 강도를 높이고 과학연구단위와 환경보호기업이 식용균 폐균봉의 재활용 및 무해화처리 기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식용균 폐균봉의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며 폐균봉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지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 관리제도 및 표준 제정의 발걸음을 다그쳐야 하는바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식용균 폐균봉의 재활용과 무해화처리 관리방법과 집행표준을 출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폐균봉에 대한 식용균 생산기업의 무해화처리 또는 재활용 등을 단속하고 식용균 폐균봉의 종합리용의 법치화, 표준화 진척을 추진해야 한다.

"식용균 폐균봉 종합관리 프로젝트도 설립할 수 있다." 류보위원은 폐균

봉, 균겨(菌糠)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가공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육성하며 폐균봉과 균겨 종합리용 프로젝트를 우선 리업 심사 비준하고 농산물 가공기업이 세금 정책을 향하게 하며 농가 폐균봉의 친환경 처리정책을 연구하고 농가 폐균봉을 해당 처리공장에 집중적으로 보내 재활용하거나 무해화처리를 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림일보



▲ 3월 9일, 길림대표단은 분조별로 국무원 조직법 개정 초안 수정,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대표들은 전적으로 찬성을 표시했다.